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키우는 우리 당의 청년중시정치

김 양 환

우리 당의 청년중시정치는 청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워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도록 하는 정치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중시로선과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청년동맹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청년들을 백두의 혈통을 이어나가는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키워 청년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으시였습니다.》

당과 혁명, 조국과 민족의 미래는 청년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청년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떠메고나갈 담당자들이며 미래의 주인공들이다. 청년들의 모습은 곧 당과 혁명, 조국과 민족의 장래의 모습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당의 청년중시정치는 청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움으로써 그들이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며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가도록 하는 정치이다.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키운다는것은 그들을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의 전세대들이 개척하고 전진시켜온 혁명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믿음직한 담당자로 교양육성한다는것을 말한다.

청년중시정치는 청년들이 수령의 혁명사상과 수령을 중심으로 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 고귀한 혁명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을 대를 이어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도록 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이 종국적으로 완성될수 있게 확고히 담보한다.

우리 당의 청년중시정치는 무엇보다먼저 청년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을 대를 이어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워 혁명의 종국적완성을 확고히 담보하는 정치이다.

혁명투쟁은 수령의 령도밑에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다시말하여 혁명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과 그 실현방도를 밝혀주는 혁명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벌려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변혁하여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계승완성하려면 청년들이 수령의 혁명사상을 대를 이어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되어야 한다.

사상은 유전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정으로 받아들여온 혁명가라

고 하여 아들이 저절로 수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되는것은 결코 아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혁명의 전세대들처럼 수령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구현해나가도록 하려면 그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혁명실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새 세대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체계적으로 끊임없이 진행하여 그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유일한 신념으로 삼는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키울 때 수령의 혁명사상은 대를 이어 견결히 옹호고수되고 빛나게 구현되게 되며 수령의 혁명위업은 종국적으로 완성되어나가게 된다.

우리 당의 청년중시정치는 청년들을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열렬한 신봉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로 교양육성하는것을 혁명위업계승완성의 관건적문제에 내세우고 여기에 큰 힘을 넣음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우리 당의 청년중시정치는 다음으로 청년들을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굳게 결속된 혁명의 주체로 만들어 혁명을 대를 이어 줄기차게 밀고나가게 하는 정치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위업은 한 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완성되어나가는 장기적이며 력사적인 위업이다. 혁명위업이 대를 이어 완성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혁명대오의 끊임없는 세대교체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지구상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운동이 시작된 때로부터 백 수십여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흘렀고 우리 나라에서 주체혁명위업이 개척된 때로부터 거의 한세기가 되어온다. 그동안에 혁명의 세대는 여러차례에 걸쳐 바뀌었으나 혁명은 의연히 계속되고있으며 최후승리를 이룩하려면 아직도 먼길을 가야 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업적을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승리적으로 전진하며 완성되어나가는것만큼 청년들이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업적을 어떻게 대하며 혁명의 주체로 어떻게 준비되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나선다.

혁명의 계승봉을 넘겨받은 청년들이 혁명의 주체로 튼튼히 준비되어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혁명위업이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대를 이어 승리적으로 전진하며 끝까지 완성될수 있다.

청년들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계속되는 혁명에서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사명을 지니고있다. 청년들이 자기가 지니고있는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려면 전세대에 이어 혁명의 주체로 튼튼히 준비되어야 한다.

청년들이 혁명의 주체로 되려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야 한다. 청년들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야만 혁명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발휘되는 청년들의 무궁무진한 힘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이다.

우리 당의 청년중시정치는 청년들을 수령을 중심으로 사상의지적으로뿐만아니라 조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결속시킴으로써 그들을 혁명의 강력한 력량, 주체로 키운다. 우

리 당은 모든 청년들을 청년동맹조직에 결속시키고 전동맹이 수령을 중심으로 굳게 뭉친 공고한 전일체로,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행동의 통일체로 만든다.

우리 당의 청년중시정치는 다음으로 청년들이 수령의 령도밑에 이룩한 고귀한 혁명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도록 함으로써 혁명의 명맥이 곳곳이 이어지게 하는 정치이다.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의 전세대들이 이룩한 고귀한 혁명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은 혁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만년초석이며 피줄기이다. 혁명위업은 혁명의 전세대들이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한 혁명전통, 고귀한 혁명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을 명맥으로 하여 전세대로부터 후세대어로 끊임없이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려면 청년들이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의 전세대들이 이룩한 혁명전통,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을 더없이 귀중한 혁명의 재부로 여기고 그것을 전결히 옹호고수하며 빛내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청년중시정치는 청년들을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의 전세대들이 이룩한 고귀한 혁명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이 담겨진 혁명전통을 전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도록 혁명적으로 교양육성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선군혁명위업의 명맥을 대를 이어 굳건히 이어나가게 하고있다.

청년들을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키우는것을 주체혁명위업완성의 근본요구로, 혁명의 전도와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사로 내세우는 우리 당의 청년중시정치는 혁명위업계승완성의 합법칙성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정치이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계속되는 혁명에서 청년들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사명을 지니고있다.

사회주의사회라고 하여도 새 세대들을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도록 옳게 교양하지 않으면 그들이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자라날수 없고 혁명의 명맥을 곳곳이 이어갈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새 세대들을 수령이 이룩한 혁명전통,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도록 하는것은 혁명위업계승완성의 합법칙적요구이며 혁명적당앞에 맡겨진 중요한 임무로 된다.

우리 당의 청년중시정치는 청년들을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키우는것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 혁명위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사로 내세우고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육성하는데 큰 힘을 넣는 정치이다.

우리 당은 혁명령도의 전기간 청년중시정치를 펼치여 청년들을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킴으로써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모든 청년들은 자신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내세우는 우리 당의 청년중시정치를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